



“비엔날레 상설전시관 건립해야”

최근 광주시가 북구 용봉동 일대에 ‘광주비엔날레 상설 국제 문화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미술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안에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보관하고, 소개하는 ‘광주비엔날레 사료관’ 건립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는 1995년부터 7차례 비엔날레를 치르고, 3차례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했지만 폐막 후 모든 전시 작품이 철거되고 기증작도 전시 공간이 없어 제대로 공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비엔날레의 역사를 소개하는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광주비엔날레 사료관’을 작품 보관시설과 상설전시실을 갖춘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엔날레 상설전시관 왜 필요한가? = 광주시는 국제공예비엔날레의 상설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은 3만5천여㎡ 규모이며,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을 상설 전시하게 된다.

또 지역 공예작가들의 공예품도 판매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공예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반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해야 상설전시관 격인 홍보자료관(1천765㎡)을 만들었지만 규모

나 시설은 청주에 크게 못 미친다. 비엔날레관 제5전시실에 들어선 홍보자료관에는 비엔날레 등 국내외 미술행사 관련 도서,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5천여점의 자료가 비치돼 있을 뿐이다.

또 1회 대상 수상작인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1995년)를 비롯해 백남준의 ‘고인돌’(1995)

들어 빠르면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와 주변 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면적은 모두 94만㎡에 달한다.

또 과거 전시와 개최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관(예산 95억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단순 ‘사료관’ 아닌 전시실 등 갖춰 행사 끝나도 출품작 연중 전시해야 기증작 늘고 문화 관광 코스 될 것

등의 기증작을 이곳에 전시하지만 장소가 좁아 특별전시 기간이 아니면 이마저도 관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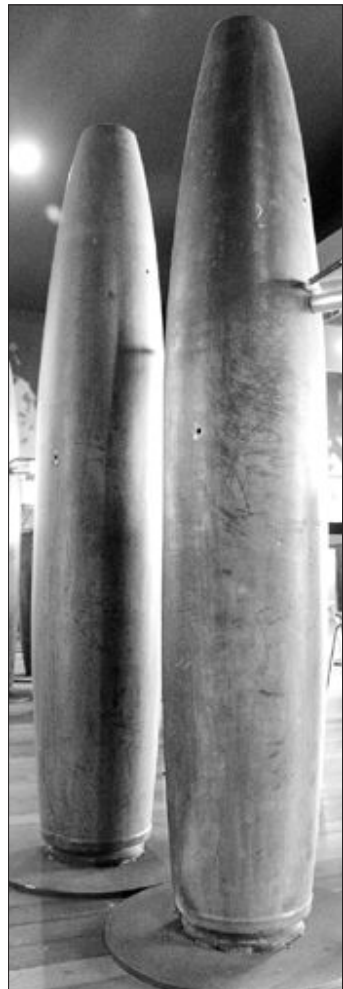
제3회디자인비엔날레 은병수 총감독은 “청주뿐 아니라 이탈리아 밀라노나트리엔탈레도 전시 기간이 끝나면 출품작을 상설전시관으로 옮겨 관람객에게 공개한다”면서 “광주비엔날레 상설전시관을 만들면 비엔날레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 년 내내 관람객이 광주를 찾는 대표 문화 코스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비엔날레사료관’ 전시 기능 갖춰야 = ‘비엔날레 상설 국제 문화타운 조성사업’은 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사업으로 181억원

시 관계자는 “사료관의 역할과 규모 등은 논의 중이며, 현재 컴퓨터를 통해 그동안 전시해 출품된 작품을 검색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료관은 자료를 보관하고, 비엔날레를 단순히 알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 한 관계자는 “그동안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10여점의 작품을 기증받았지만 홍보자료관이 비좁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료관을 첨단 시설을 갖춘 상설전시관으로 만든다면, 기증작도 더욱 늘어날 것이



비엔날레 전시관 내 카페에 보관 중인 광주비엔날레 기증작 임옥상의 ‘차나 한 잔 할시다’

고 광주비엔날레를 한 층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성영화 보며 피아노 감상

‘제2회 나주현대음악제’ 20·21일 나주문예회관

무성영화를 관람하며 피아노를 감상한다. 전자음악과 피아노의 어우러짐은 어떤 느낌을 전할까.

다양한 현대음악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제2회 나주현대음악제’가 20일(오후 7시), 21일(오후 6시)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나주에서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트러스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무지카봄(대표 조기홍)이 기획한 음악회다.

‘깊이애의 강요 넓이에의 사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특히 나주라는 소도시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현대 클래식 음악을 집중적으로 공연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통음악+프리뮤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째날 공연에는 200여회가 넘는 하우스콘서트로 이름을 알린 박창수씨가 에르네 메츠너 감독의 ‘공격’을 배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또 부인 김영희씨가 이끄는 김영희트윈스의 춤과 어우러진 ‘아리랑 2’도 선보인다.

또 정현수 전남대 교수가 ‘가야금 삼중합주를 위한 삼보(三寶)’ 대금·가야금·피아노가 어우러진 ‘신한우가’를 선보인다.

‘현대음악+전자음악’이 테마인 둘째날 공연에서 김선철씨는 나주 출신

산성현 선생의 ‘엄마야 누나야’를 테마로 한 피아노 트리오곡 ‘엄마야 누나야’ 주제에 의한 대화와 ‘현악 4중주를 위한 선(禪)’, 김무삼씨는 ‘전 자유향을 위한 바라보는 바라봄’을 들려준다.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한 피날레 곡 ‘둘이 하나로 두 작곡가가 시간만 정해 놓고 각자 작업해 하나의 곡을 만들고 이를 동시에 연주하는 새로운 시도다.

강혜경·박민경·정인봉·송선명·김지혜·김정아·현순이·김창현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1-330-87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센 작 ‘민중의 적’ 공연

19~22일 씨디 아트홀

‘다수는 과연, 언제나 옳은 것일까’ ‘세상을 장악하는 힘과 진실 중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

모처럼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선거운 연극 작품이 공연중이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노르웨이 극작가 임센의 작품 ‘민중의 적’을 무대에 올린다. 19~20일 오후 8시, 21~22일 오후 5시, 씨디 아트홀.

작품의 배경은 온천이 마을의 주 수입원인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 과학자인 스토크만 박사는 온천수가 오염돼 전염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온천 개발 계획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스토크만 박사의 형인 시장은 주민들의 이익을 언급하며 은폐를 시도하고, 오염 실상을 과격히겠다고 나선던 한 신문사마저 태도를 바꾼다.

임센은 “위선과 부패로 가득찬 지도층 뿐 아니라 그 지



도자를 용인한 채 무조건 따라가는 어리석은 다수를 비판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100여년전에 써어진 희곡이지만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거짓도 일삼는 정치가, 정치가와 아합하는 언론 등 몇몇 대목에서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일부 배우들의 연기가 오버스럽긴 하지만 주인공 박영진씨를 비롯해 이기안·정경아씨 등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대구에서 활동하는 이송희씨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문의 062-521-7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선제 아쟁연주회

20일 서구 빛고을극악전수관

김선제(사진) 아쟁연주회가 20일 오후 7시 서구 빛고을극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박종선류 아쟁 산조’, ‘신옥자배기’, ‘흠은 가락’ 등을 들려준다. 김씨는 특히 자신이 직접 작곡한 신디사이저와 아쟁, 심벌즈가 어우러진 ‘그 시간들의 그리움’을 초연한다.

전남대 국악과와 동대학원을 거쳐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대불대 전통문화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김씨는 특히 작곡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름다운 인생’, ‘태동’ 등 해금곡, 거문고곡, 실내악곡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을 발표했으며 ‘금당’ 등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무대에 올린 곡들도 많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15회 광주미술상 공모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연균)는 제 15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를 공모한다.

광주·전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30세 이상 45세 미만 작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는 최근 5년 이내의 포트폴리오를 오는 12월11일까지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작가 본인도 직접 응모할 수 있으며, 제3자 추천, 운영위원 추천도 가능하다. 수상자는 12월20일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상금은 1천만원, 차석 2인에게 100만원씩 수여된다.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문의 010-3162-59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 예술인들 광주에 모인다

7개국 11명 초청... 문화발표·합동 전시회

아시아 지역 예술인들이 광주에 모여 미술문화 발표회와 합동전시회를 연다.

광주시는 17일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예술인 11명을 초청해 오는 23일까지 아시아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초청작가는 네팔의 비제이 싱, 부디 구릉, 필리핀의 마크 살바투스 3세, 싱가포르의 테렌스 린, 인도의 드벤드라 슈클라, 일본의 미카 안도, 대만의 양 민 다이, 중국의 후양 시아오 쉰 등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기영숙, 박구환, 이매리, 표인부, 김재성, 안진성, 김영태가, 조문현 등 8명이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들은 18일 오후 1시 광주 히딩크 호텔에서 ‘아시아 미술정신 핵심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문화 발표회를 연다.

또 21일부터 12월4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인동 갤러리 아트파티(Art Party)에서 ‘아시아-정신의 자유’를 주제로 합동 전시회도 마련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영화에세이 101

메가박스

1관	2012 (124)	최고급관
2관	청담보살 (154)	
3관	집행자 (184)/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4관	청담보살 (154)	
5관	2012 (124)	
6관	청담보살 (154)	
7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4)/펜트하우스코끼리 (184)	
8관	2012 (124)	
9관	2012 (124)	

• 아프우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면외국사거리 ♥에메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2관	킬미 (184)/펜트하우스코끼리 (184)
3관	2012 (124)
4관	2012 (124)
5관	바스터즈: 거침내석돌 (184)/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6관	청담보살 (154)
7관	2012 (124)
8관	집행자 (184)
9관	청담보살 (154)
10관	2012 (124)

원도시영화사영 • 061-261-1111 •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앞편)



1588-7941 상무병원 옆 별명 -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바스터즈: 거침내석돌 (184)
2관	청담보살 (154)
3관	집행자 (184)
4관	킬미 (184)
5관	청담보살 (154)
6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4)/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7관	2012 (124)
8관	2012 (124)
9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10관	2012 (124)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용심야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8시 수영장 289-5757 • 하이볼관장 262-0925

• 하이골프장 251-5080 • 하이담구장



고려시영 고래광동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문 하이미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집행자 (184)/2012 (124)
2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4)/청담보살 (154)
3관	2012 (124)
4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4)/킬미 (184)
5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6관	청담보살 (154)
7관	2012 (12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용심야 할인혜택

• 세븐스투자 사수나(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2012 (124)
2관	2012 (124)
3관	2012 (124)
4관	청담보살 (154)
5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제)
6관	집행자 (184)
7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4)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교체에 한함



세무서기점 •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 용장동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